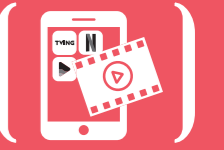


20
21

Vol. 13

OTT 오리지널 드라마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OTT
오리지널 드라마

04

양적 분석

07

내용 분석

16

나가며

18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OTT오리지널 드라마 내용 분석 보고서

웨이브, 넷플릭스, 티빙 등 OTT(Over-the-top) 서비스사들은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매해 OTT 이용자 및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OTT 오리지널 드라마를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링했다. OTT오리지널 드라마에는 OTT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뿐 아니라 OTT사 전액 투자를 통해 공중파에서 동시 방영한 작품까지 모두 포함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드라마가 전체 서사가 중요하다는 장르 특성을 반영해 전체 회차를 모두 시청했다.

<콘텐츠산업 2021 결산, 2022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3개 OTT 채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에 새로운 회차가 업로드 된 OTT 오리지널 드라마 프로그램.

표1 _____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연번	보유OTT	프로그램명	조회수 ²	관람 등급
1	넷플릭스	D.P.	30,200,000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2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69,600,000	청소년 관람불가
3	웨이브	검은 태양	402,000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4	웨이브	원더우먼	534,000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5	티빙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123,000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6	티빙	유미의 세포들	250,000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1. _____ 프로그램 전회차 *오리지널 콘텐츠 기준은 OTT의 전액 자본 투자 제작 영상물 및 독립 공개 영상
 2. _____ 각 프로그램별 소비자 반응 정도 및 인기도 측정을 위해 구글 검색 결과 참고(10/5 기준).

[양적 분석]

1 출연자 성비

출연자 성비는 여성이 52명(37.7%) 남성이 86명(62.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수로 등장했다. 총 여섯 편의 모니터링 매체 중 유일하게 <원더우먼>만이 남성 출연자에 비해 여성 출연자가 많았다.

표2 _____ 출연자 성비

no	보유OTT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넷플릭스	D.P. ³	4	15
2		오징어게임	2	13
3	웨이브	검은 태양	7	9
4		원더우먼	12	6
5	티빙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8	14
6		유미의 세포들	19	29
합계			52 (37.7%)	86 (62.3%)
			138(100%)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성별과 상관없이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과거 및 타 매체에서 여성은 주로 20-30대 출연자가 주를 이루고, 남성은 20-50대에 고루 분포하며 여성의 젊음만을 소비하는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 여전히 남성 출연자 성비가 높지만 적어도 연령대에 있어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3 _____ 출연자 성별 연령대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1 (0.7%)	5 (3.6%)	31 (22.5%)	32 (23.2%)	13 (9.4%)	13 (9.4%)	4 (2.9%)	3 (2.2%)	36 (26.1%)	138 (100%)
여성 (전체%)	0	2 (1.4%)	11 (8.0%)	13 (9.4%)	3 (2.2%)	6 (4.3%)	1 (0.7%)	2 (1.4%)	14 (10.1%)	52 (37.7%)
남성 (전체%)	1 (0.7%)	3 (2.2%)	20 (14.5%)	19 (13.8%)	10 (7.2%)	7 (5.1%)	3 (2.2%)	1 (0.7%)	22 (15.9%)	86 (62.3%)

3 성별 혼인여부

성별에 따라 혼인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비혼의 경우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던 반면, 기혼/사별의 경우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연출되는 반면 여성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기혼 자로서 위치가 더욱 명백히 묘사되었다.

표4 _____ 성별 혼인여부

	비혼	기혼/사별	동거	이혼/별거	미상	합계
여성	19 (36.5%)	12 (23.1%)	1 (1.9%)	0	20 (38.5%)	52 (100%)
남성	38 (44.2%)	14 (16.3%)	0	0	34 (39.5%)	86 (100%)
합계	57	26	1	0	54	138

3. _____ 다만 <D.P.>의 경우 한국 군대의 부조리를 다룬 작품으로 공간적 배경 자체가 군대로, 남성 출연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양적 분석

4 성별 직업군

성별에 따른 직업 분포도는 과거 여성의 직업이 무직이나 비전문 직업인으로 등장하고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묘사⁴되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의 직업 또한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성은 교수, 법조인 등 전문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반면, 여성만이 주부로 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5 _____출연자 직업군 (단위: 명)

직업군	배우	가수	연예인 (기자 등)	연리사 / 오리엔트 연구가	작가	교수	교육전문가 (교사 등)	그외 특장분야 전문가	학생	회사원	주부	자유업자	정치인	경찰	근인	기업인	공무원	법조인	범죄자	무직	일수정비	기타	계
여성	1	1	2	1	0	1	1	5	2	5	3	0	0	0	0	3	0	1	1	2	16	7	52
남성	0	0	1	0	1	3	0	6	5	7	0	4	1	1	14	3	1	4	3	2	23	7	86
계	1	1	3	1	1	4	1	11	7	12	3	4	1	1	14	6	1	5	4	4	39	14	138

5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표6 _____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6	젠더 고정관념 반영	29
		성적 괴롭힘·성폭력 정당화	3
		외모에 대한 평가	1
		성적 대상화	4
		기타	1
합계	6	합계	38

4 _____ 신미수, 『미디어와 젠더』, 101쪽.

[내용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OTT오리지널 드라마에서 성평등적 내용은 입체적인 캐릭터 설정,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재현하는 등 기존 드라마에서 반복되던 성차별적 특성을 탈피한 사례들이었다. 다양한 캐릭터와 가족 형태의 구현은 미디어에서 성평등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극의 다양성 또한 확보해 작품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원더우먼, <유미의 세포들> : 주체적 여성상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웨이브	원 더 우먼 11/16 (16화)	여자 주인공은 할머니를 죽게 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검사가 되었다. 주요 악역을 처벌하기 위한 최종작전을 짤 때 여자 주인공이 주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해당 드라마는 여자 주인공의 주체적인 성격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서사를 이어나간다.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기존 드라마와 다르다.
티빙	유미의 세포들 10/30 (14화)	“미안하지만, 웅이는 남자 주인공이 아니야. 남자 주인공은 따로 없어. 이곳의 주인공은 한 명이거든” 마지막 화(14화)에서 주인공 ‘유미’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는 세포들과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유미의 세포들> 같은 로맨스물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공들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매우 많은 경우 여성 캐릭터가 연애와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남자친구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삶으로부터 스스로 주변화 되고 소외된다는 것이다. 사랑 밖에 모르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당 장면은 <유미의 세포들> 같은 로맨스물 다수에 내포된 차별적인 장르적 관습을 깨려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만 원작인 웹툰<유미의 세포들>에서는 연애물에서 유미의 자아 찾기와 성장 서사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저 장면이 나왔기에 더더욱 연애 너머 여성의 주체성이 강조되고 많은 여성 독자들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반면, 좀 더 연애물에 가까운 드라마에서는 그만큼의 효과를 전체 서사가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은 아쉽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 다양한 가족 형태 재현

방송사 / 방송일(회차)

프로그램명

분석

티빙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7/16 (1화, 2화)

여성 주인공과 남성 주인공은 모두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다. 여성은 아버지가 있기는 하나 별거 중이며(이혼 추정), 남성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지낸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인물이 불행해지는 연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둘 모두 가정 내 분위기가 화목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한부모가정이라는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여자 주인공 가족>



<남자 주인공 가족>



검은태양 : 다양한 여성 캐릭터 출연

방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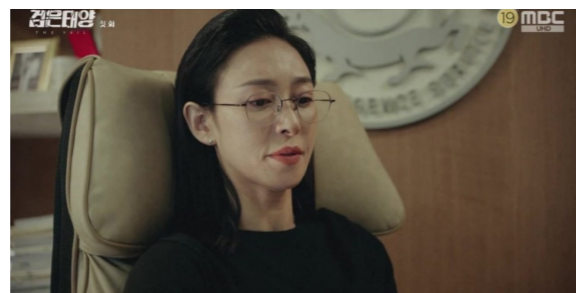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웨이브

검은태양
1, 2화

여기에 나오는 여성 상사 캐릭터는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로서 극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남성 주인공보다 계급이 높고 다른 여타 남성 상사들과 동일한 권력을 갖는다. 기존 느와르 액션 드라마에서 전반적인 극을 이끌고, 주요한 역할을 맡는 성별이 남성인 가운데 주요한 여성 캐릭터의 등장 반갑다. 여성 캐릭터라고 해서 과도한 화장과 같은 외적인 특성으로 성별을 드러내지 않는다.



2 성차별적 내용

① 젠더(성별) 고정관념 강화

OTT오리지널 드라마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감성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재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에서는 여성의 성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다는 젠더 고정관념을 자극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머느리'는 시부모님을 부양하고, 식사 등을 챙겨야 한다는 대사가 관용어구처럼 등장하고 있다. 이는 평면적인 등장인물 표현일뿐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여성의 '모성애'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장면 또한 모니터링 중 발견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모성은 본능적인 것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모성은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서 여성의 역할을 규정짓고 제한하는 개념이다.⁵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댓가로 치매에 걸리는 어머니의 모습(<마녀식당으로 오세요>)은 자식에 대한 여성의 희생이 합당한 것이라고 미화한다.

고정된 성역할 반영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티빙	유미의 세포들 9/17 (1화) 9/25 (4화)	<p>드라마 속 주인공 유미의 '이성 세포'는 남성 성우가 목소리를 연기하는 남성 캐릭터, '감성 세포'는 여성 성우가 목소리를 연기하는 여성 캐릭터다. 또한 세포들 중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캐릭터인 '불안 세포' 역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여성 성우가 목소리를 연기한다.</p> <p>한편, 유미의 상대역인 구웅의 '이성 세포'는 동일하게 남성 캐릭터이며, 성우 역시 남성이다. 구웅의 세포 마을은 첨단과학기술이 반영된 AI 시스템으로, 모든 사고를 '논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설정은 구웅이 컴퓨터 프로그램 래미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특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하지만 늘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유미와 대조적으로 구웅의 모습은 남성 이 여성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잘못된 젠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p> <p>구웅의 AI 시스템 속 인공지능 비서의 목소리는 '여성'이다. 젠더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여성 목소리의 AI 비서들을 기본값으로 전제함으로써 "여성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도우미라는 편견을 주입할 수" 있다.</p>

5 _____ 신미수, 『미디어와 젠더』, 116쪽

6 _____ "인공지능 비서는 왜 여성 목소리가 '기본값'인가" 경향신문, 2021.05.03. 조미담. 노정연 기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03150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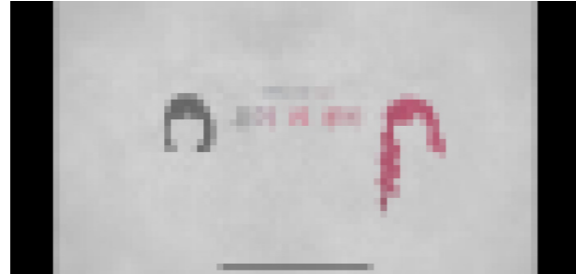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9/17 (1화) 9/24 (3화) 10/1 (5화)	<p>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주인공 유미를 둘러싼 여성 캐릭터들은 회사 동료인 '이다'를 제외하고 모두 특정 남성 캐릭터를 둘러싸고 유미와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거나 로맨스 관계를 소재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존재로 등장한다. 여성 조연인 루비의 캐릭터는 '평범한 여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리고 예쁘고 알미우며 여우 같은 여성 조연'으로서만 머무르고 소비된다.</p> <p>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등장해도 여전히 '연적'으로만 설정해 여성들 간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스토리 전개 상 여성과 여성이 '연적'으로서 갈등 관계에 놓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구도는 지금까지 많은 콘텐츠에서 여-여 관계를 정형화했던 클리셰이다. 미디어에서의</p>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이러한 묘사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여성의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다뤄지는 것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남성과의 사랑, 연애, 결혼’만으로 단순화시키고, 또한 조연 여성들의 성격을 ‘연적’으로만 일원화하여 여성 캐릭터들의 서사를 한계 짓는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1회

“치매 걱정할 나이에 어찌자고 여기 들어 오셨어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순 밥 드시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면서 등이나 지지고 계시지.”

게임에 참여한 중년의 남성이 노인 남성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에서 며느리를 밥 차리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이 대사는 우리 사회에서 상식에 가깝게 통용되는 정상 가족 및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다.



지나친 모성에 강조

방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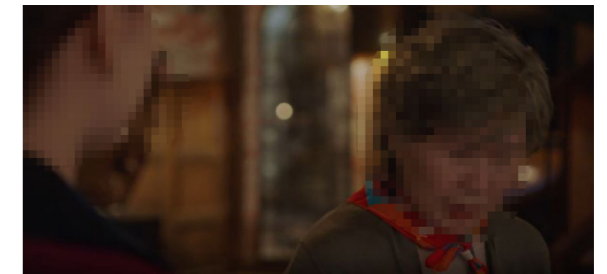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티빙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8/6 (5화) (+6화)

50대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5화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더 늦기 전에 결혼시키기 위해 아들보다 훨씬 어린(28세) 여성 주인공을 계속 꼬드긴다. 즉 이 어머니는 아들이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뒷바라지해 줄 수단으로 취급한다. 동시에 '나이가 차면 결혼 후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전통적 정상 가족 신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난다. 결국 마녀식당에서 자신의 기억을 대가로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빈 어머니가 기억을 잃고 치매에 걸린다. 방송에서 여성인 어머니의 희생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을 팔아 쉽게 이득을 취하는 여성’이라는 젠더 고정관념 재현

여성의 ‘애교’ 혹은 ‘성관계’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거나 사랑을 받는 등 어떤 이득을 취하는 장면들이 모니터링되었다. <오징어 게임>에서 여성 출연자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을 활용해 안전을 보장받는다. 여성이 애교와 같은 행동 특성, 성을 이용해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성을 교환 가능한 것으로 재현하고 있다. ‘성을 팔아 쉽게 이득을 취하는 여성’이라는 젠더 고정관념을 재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성을 재화로 안온함을 추구한다는 젠더 고정관념이 무비판적으로 반복 재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을 오직 성적대상으로만 보는 남성 중심 권력 역시 비판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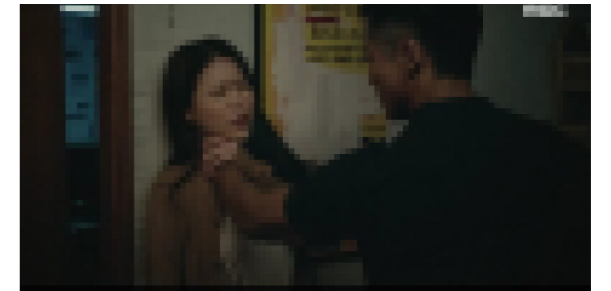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4회	미녀가 게임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덕수와 성관계를 가진다. 이는 결국 여성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 하여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다는 여성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을 재현하고 있다.



방송사 / 방송일(회차)	프로그램명	분석
		'교제 폭력'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여성이 무차별하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웨이브	검은태양 10/2 (6화)	남성 주인공이 조력자인 여성을 적으로 의심하며 목을 조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폭력은 범죄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면은 적이라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	---



② 젠더 폭력 정당화

방송심의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안되고, 내용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도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⁷ 그럼에도 남성이 분노하는 장면에서 여성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검은태양>에서 발견됐다. 다만,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폭력의 양상이 조금 다르다.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의 경우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을 재현하는 것에 가깝다. 드라마 밖 현실 속 실제 피해자들이 있는 폭력의 양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검은 태양>의 경우 액션, 느와르라는 장르 안에서 재현된 폭력이다. 그럼에도 실제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을 장르적 장치로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방송사 / 방송일(회차)	프로그램명	분석
티빙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8/13 (7화)	연애하던 여성 주인공에게 자신이 유부남이었음을 들킨 남성이 여성 주인공에게 사과하겠다고 집에 무단 침입한다. 여성이 거부하자 여성을 협박하고 밀치며 목을 조른다. 남성은 자신이 여성을 사랑해서 그러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에 해당한다. 여성이 저항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남성 주인공이 집에 쫓아와 가해자 남성을 제압한다. 이 일련의 장면이 여과 없이 보여진다. 이후 경찰서에서도 가해자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인 여성을 협박한다.

7.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6조 (폭력묘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OTT오리지널 드라마

[나가며]

OTT오리지널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인물 표현, 가족 형태 재현 등에서 풍성한 서사와 성평등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평등 사례가 모니터링된 작품 안에서 성차별적인 요소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보다 포괄적이고 섬세한 관점에서 젠더가 재현되어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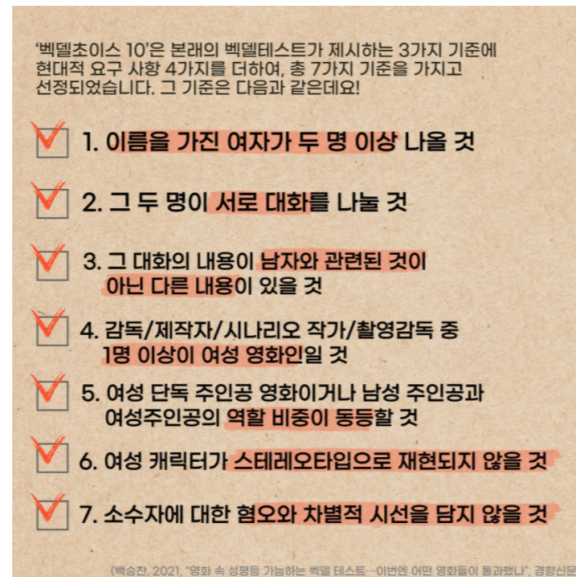
OTT오리지널 드라마에서도 TV 드라마와 다름없이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구분하고, 고정관념을 답습하는 장면들이 포착되었다. 예컨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속 핵심 인물들은 “남성=이성적, 합리적=공적 공간=일”, “여성=감정적, 비합리적=사적 공간=결혼, 연애”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성별 이분화된 방식으로 인물들의 성격이 묘사되고, 위기 상황 대처도 고정된 성별 프레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자 주인공 유미는 사랑에 빠지면 자

신보다 상대를 더 위하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일에 대해서도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1화 참고) 하지만 남성 상대역인 ‘구웅’의 경우, 자신의 일을 중시하며 데이트 중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5화 참고). 이러한 설정은 남성은 공적 영역(사회), 여성은 사적 영역(연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부응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오랜 시간 여성을 남성과 차등적인 존재로 종속하게 한 여성 억압 기제였다.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프레임이 드라마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된다면 대중과 사회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왜곡된 젠더 인식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고착할 우려가 있다. 드라마에서 재현된, 여성이 ‘애교’ 혹은 ‘성’을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장면 또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나녀식당으로 오세요>, <검은태양> 등에서는 남성이 분노하는 장면에서 여성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발견됐다. 폭력의 상황에서 여성이 무력하게 묘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또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현될 경우 젠더 폭력의 문제가 사소화될 우려가 있다. 현실에 실제로 폭력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그러한 폭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원칙을 드라마 안에서도 구현해야 한다. 폭력을 비판적으로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처벌을 받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캐릭터와 서사, 화면 연출 등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해 시청자의 여가 시간을 함께하는 OTT 오리지널 드라마가 성평등적인 미디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벡델 테스트’(Bechdeltest)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벡델 테스트는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 엘리스 벡델이 남성 중심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계량하기 위해 고안한 영화 성평등 테스트를 말한다.⁸ 여기에 현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벡델 테스트를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 참고해 볼 수 있다.

<벡델 초이스 10>,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 양적분석

1. 모니터링동가명

2. 보유 OTT
① 넷플릭스 ② 웨이브 ③ 티빙

3. 프로그램명

4. 회차

5. 업로드 일자 *확인 가능시

6. 출연자 분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 게재된 출연자에 한하여 분석

6-1. 이름	
6-2. 주연여부	① 제1주인공 ② 제2주인공
6-3.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6-4.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알 수 없음
6-5. 직업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신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종교인 ㉓ 정치인 ㉔ 경찰 ㉕ 군인 ㉖ 기업인 ㉗ 공무원 ㉘ 농어업 ㉙ 법조인 ㉚ 범죄자 ㉛ 명예직 ㉜ 왕족/귀족 ㉝ 무직 ㉞ 알 수 없음 ㉟ 기타_____
6-6. 결혼여부	① 비혼 ② 기혼/사별 ③ 동거 ④ 이혼/별거 ⑤ 미상
6-7. 성격	① 수동적이다 ② 감정적이다 ③ 질투가 많다 ④ 친절하다 ⑤ 순종적이다 ⑥ 의지가 강하다 ⑦ 직업적 야심이 있다 ⑧ 폭력적이다 ⑨ 계략을 꾸민다 ⑩ 경쟁적이다 ⑪ 독립심이 있다 ⑫ 기타_____
6-8. 인물평가	① 부정적 ② 중립적 ③ 긍정적 ④ 미해당
6-9. 제1 주인공과의 관계	① 애정 ② 대립/경쟁 ③ 협력/지원 ④ 기타 ⑤ 주인공 본인

8. _____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벡델 테스트'

■ 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보유 OTT	프로그램명	방영일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사진캡처 포함)	영상 URL	해당장면 재생지점
					분 초
					분 초
					분 초

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보유 OTT	프로그램명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사진캡처 포함)	영상 URL	해당장면 재생지점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분 초
성적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분 초
외모에 대한 평가						분 초
성적 대상화						분 초
기타						분 초

3. 종합의견

■ 성평등적 내용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남성의 가사 노동은 단순 등장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포함시키도록. ex. 남성의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시혜적이라는 식으로 그려질 경우, 단발적이고 이벤트 성의 남성 육아를 보여주는 경우, 같이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에게 더 큰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 등은 다양한 역할로 표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 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ex. 김치녀, 된장녀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 능력 없는 남자를 폄하하는 경우,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의 이분법적 색 구도를 보여주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자리나 위치를 구분하여 다르게 배치하는 경우, 여아에게는 '예쁘다', 남아에게는 '멋지다'고 칭찬하는 경우)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ex. 집안일을 여성만 하는 경우, 운전하는 모습은 남성만 보여주는 경우, 전문직 종사자로서 남성만 등장하는 경우)
- 남성 중심적 성규범(강간통념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ex. 여성은 순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경우, 남성의 성욕은 자연스럽고 조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 여성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 남성들끼리 서로의 연애 경험이나 성경험을 공유하거나 옹호하는 경우)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ex. 로맨스 상황에서 남성이 위기상황의 여성을 구원해주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경우,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한쪽이 복종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경우)

2. 성적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 방송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방송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로맨스로 보이게 하는가?
(ex. 손목 낚아채기, 끌고 가기, 벽치기 키스, 싸우다가 키스하기, 거절해도 계속 대쉬하기 등)
- 성차별적·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을 드러내고 있는가?
(제목에 가해자의 변명이나 서사를 활용,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선정적인 표현 사용,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묘사, 성범죄 및 여성혐오 범죄를 사소화시키는 표현 사용)

3.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ex.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유머로 혹은 긍정적으로 소비하는가? 연예인 SNS 사진을 활용해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외모와 젊음을 강조하며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가?
-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가?

4. 성적대상화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 여성에 대해 침해 가능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가?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ex. 연예인 SNS 사진을 편집하여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메인사진으로 노출)
-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관행적 묘사방식이 드러나는가?
(ex. 여성연예인 이름+신체일부로 묘사,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관용어 활용)

5. 젠더 간 위계

- 젠더 위계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ex. 집안의 땅 계약과 같은 중요한 일에 여성 배제, 이성 관계에서의 남성주도, 조직 내 권력 위계 등)
- 젠더 위계가 드러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6. 기타

-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ex.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남성과 여성이 출연하면 무조건 이성애적 로맨스 관계로 규정하는 경우)
- 방송은 00녀와 같은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 불필요한 성별 접두사(여/女) 사용으로 남성을 주류로 전제하거나, 여성을 예외로 여겨지도록 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는가? 성별 접미사(여/女)를 사용하여 여성혐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가?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
최 봄 · 김예리 · 이지은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위근우 문화 평론가

발행처
서울YWCA

협력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

OTT 오리지널 드라마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